

# “임대료 과다” 금남지하상가 상인들 소송

### “광주시, 매년 임대료 산정시 시세 반영 안해”...부당이득 8억원 반환 청구

광주시 동구 금남지하상가 상인들이 “임대료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인들은 해마다 임대료를 새롭게 산정하고 이 과정에 시세를 반영해야 하는데도 광주시가 이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도심공동화에 따라 금남지하상가 시세도 떨어졌고 이를 반영해 임대료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상인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지하상가 전체 상인들의 줄소송도 우려되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금남지하상가 상인 16명이 “그동안 부당하게 산정

된 임대료 및 보증금 등 8억여원을 돌려달라”며 광주시와 금남지하상가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 등을 통해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에 따라 시세를 반영한 재산 평가를 하고, 이를 통해 해마다 임대료를 재산정해야 하는데도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가 이를 어기고 위법·부당하게 임대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동구 임대 건물가격이 낮아졌는데도 광주시가 금남지하상가 임대료 산정 과정에 이를 제

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금남지하상가 상인 대부분은 어렵게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이며,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일부 상인들이 수차례 과납된 임대료를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광주도시공사 등은 임대차 재계약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서울시의 경우 지하상가의 임대료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상인은 지난 2011년 공유재산법과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토대로 산정한 시가 표준액 이상 과납된 금액이 상가별로

1800만원~1억6700만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또 과납된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광주시 등을 대상으로 추가 문서제출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정확한 상황 파악에 나섰고, 이후 다른 상인들의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도시공사와 상인들이 정당한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징수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989년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된 금남로지하상가에는 현재 1공구 204개, 2공구 173개 등 377곳의 점포가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금호타이어 채권단 최후 통첩

### 기한 내 노사 합의안 없으면 청산 절차 돌입 채권 상환유예 유지...‘부도’ 극한 상황은 없을 듯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금호타이어에 최후 통첩을 보냈다.

금호타이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채권단)는 28일 채권단 실무책임자 회의를 열고 논의를 거쳐 구체적 처리 방안 및 공식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27일까지 노사 합의로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채권단은 특히 “자구계획 이행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의 조치가 없는 경우 금호타이어가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채권단 협의에서 모든 실행 가능한 처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금호타이어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못 미쳐 청산 절차에 돌입하는 게 낫다는 지적이 채권단 사이에서 잇따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기한 내 노사 합의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청산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채권

단 내부 분위기도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채권단은 채권단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 상환유예를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혀 ‘부도’라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애초 기한 내 협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조 3000억원 상당의 차입금 연장 등 유동성 대책을 소급해 무효화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이날 오후 노조와 막판 타결을 위한 본교섭에 나섰지만 ‘해의 매가 중단 및 해의 자본 유치시 노조와 합의할 것’ 등을 요구하는 노조와 간격을 좁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채권단이 ‘외부 자본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한 약정서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자본’에 해의 매가 포함된다면 약정서 체결을 받아들일 없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김지용기자 dok2000@

# 참혹·처참...일본군 조선인 위안부 학살 영상 첫 공개

### 서울시·서울대 인권센터

### 1944년 중 원난성 19초 분량

일본군에 의한 조선인 위안부 학살을 증명하는 영상이 최초로 공개됐다.

“(1944년 9월 13일 밤) 일본군이 조선인 여성 30명을 총살했다.(Night of the 13th the Japs shot 30 Korean girls in the city)”는 내용이 담긴 미·중 연합군의 문서를 뒷받침하는 영상기록이다.

서울시와 서울대 인권센터는 3·1절 99주년을 기념해 27일 개최한 한·중·일 일본군 위안부 국제퍼포먼스에서 일본군의 조선인 위안부 학살 영상을 공개했다.

19초 분량의 이 영상은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전쟁 패전 직전인 1944년 9월 중국 원난성 텡충(騰冲)에서 미·중 연합군이 찍은 것이다. 조선인 위안부들이 일본군에 의해 학살된 후 한꺼번에 버려진 참혹한 모습을 담고 있다. 시신을 매장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중국군 병사가 시신의

말뭉을 벗기는 장면도 포착됐다.

미·중 연합군은 1944년 6월부터 중국·미얀마 접경지대인 원난성 봉산(松山)과 텡충의 일본군 점령지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같은 해 9월 7일 봉산을, 일주일 뒤인 14일엔 텡충을 함락했다.

당시 이곳엔 일본군에 끌려온 조선인 위안부 70~80명이 있었다. 영상을 촬영한 날짜는 텡충 함락 다음 날인 1944년 9월 15일이다. 함락 당시 연합군에 포로로 잡혀 생존한 23명을 제외한 조선인 위안부 대부분은 일본군이 학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패전이 임박하자 당시 일본 작전참모였던 츠지 마사노부는 봉산·텡충 주둔 일본군에게 “지원 병력이 도착하는 10월 까지 계속 저항하라”는 사실상의 ‘옥쇄(감제적 집단자결)’ 명령을 내린다. 이를 거부한 조선인 위안부들이 일부 민간인과 함께 학살당했다고 서울대 인권센터 정진성 교수 연구팀은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3·1절 99주년을 기념해 27일 개최한 한·중·일 ‘일본군 위안부 국제퍼포먼스’에서 일본군이 조선인 ‘위안부’를 학살했음을 보여주는 영상을 공개했다고 27일 전했다. 1944년 9월 15일 미국 사진병 프랭크 맨윌런이 중국 원난성 텡충에서 촬영한 조선인 위안부가 학살된 모습. /연합뉴스

# 문화전당장 또 직무대리?

### 방선규 직무대리 명퇴 신청

방선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직무대리가 금명간 명에 퇴직한다.

문화부에서는 후임으로 또 다시 직무대리를 내려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지역 반발도 예상된다.

방선규 문화전당장 직무대리는 지난 달 중순 문화부에 명퇴퇴직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년 1년 6개월을 남겨 두고 있는 상태다. 문화부에서는 명퇴를

받아들이기로 전해졌다.

방 직무대리는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 그는 문화전당을 2년7개월 동안 이끌어왔다.

문화부는 조만간 직무대리 선임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전당장 6차 공모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업무를 맡는 자리여서 내부 인선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전당장 조기 선임을 촉구 해온 광주 지역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

# 김성곤 전 민주당 의원 국회 사무총장 내정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에 김성곤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김교흥 현 사무총장이 28일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총장직을 사퇴한 데 따라 후임자를 물색한 끝에 김 전 의원을 내정했다.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는 여수에서 15대, 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지난 2007년 열린우리당 정세균 당의장과 함께 최고위원을 지낸 바 있다. 현재 민주당 서울 강남갑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전 의원은 28일 본회의에서 임명 승인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국회 사무총장에 취임하게 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운동주·이육사 친필원고 문화재 된다



운동주의 ‘서시’, ‘자화상’ 등은 시인의 대표적인 시로 친필 원고 형태로 남아 있다. 그의 친필 원고는 현대 시문학사의 중요한 자료이자, 문학적 생애를 가능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다.

일제강점기 독립을 꿈꾸며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시를 쓰고자 했던 운동주 시인(1917~1945)의 친필원고(사건)가 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3·1절을 맞아

‘운동주 친필원고’를 비롯해 이육사 친필원고 ‘편복’, ‘장효근 일기’ 등 기록물 5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문인이 쓴 원고가 문화재로 등록되는 것은 처음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

‘운동주 친필원고’는 운동주가 남긴 유일한 친필원고로 개작을 포함해 시 144편과 산문 4편이 담겼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詩)’와 같은 개별 원고를 하나로 묶은 시집 3책과 산문집 1책, 낱장 원고로 구성됐다.

이 원고들은 운동주의 누이동생 윤혜원

과 연희전문(현 연세대) 시절 친구인 강처중, 정병익이 보관하고 있다가 2013년 연세대에 기증했다.

‘이육사 친필원고’ ‘편복’은 이육사(1904~1944)가 남긴 시 ‘편복’의 원고다. 동굴에 매달려 살아가는 박쥐에 빔대 일제강점기 우리민족의 현실을 형상화했다. 당시 ‘편복’은 일제의 사건 검열에 걸려 발표되지 못했으나, 해방 후 1956년 ‘육사시집’에 처음 수록돼 알려졌다.

한편 ‘편복’은 육사의 시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분물건/문종산 특별우대!

## 임야

바로 삽니다. 010-6838-1230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 오천·경매

담당 최선규. 010-3605-5000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5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나요?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도 고수익을 볼.

2018년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8년 2월 1일(목) ~ 2018년 3월 8일(목)
- 교육기간 : 2018년 3월 8일(목) ~ 2018년 6월 14일(목)
-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 강 료 : 20만원(예금주: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접수문의 : 062)230-7700~2 상담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

2018년도 1학기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8년 2월 1일(목) ~ 2018년 3월 9일(금)
- 교육기간 : 2018년 3월 13일(화) ~ 2018년 6월 19일(화)
- 매주 화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 강 료 : 20만원(예금주:광주여자대학교) 광주은행 148-107-307803
- 접수문의 : 062)950-3583~5 상담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

## 건물임대

| 병원 적합 |

건물명	일신방직 내 건물
위 치	광주 북구 임동 100-64번지(나동)
대지면적	5,464㎡
연 면 적	4,792,83㎡
용도지역	일반공업지역(병원등 용도변경 가능)

층별	면적(㎡/평)
지하	499,1㎡(151평)
1층	655,2㎡(198평)
2층	1,064,2㎡(322평)
3층	1,064,2㎡(322평)
4층	1,064,2㎡(322평)
계	4,346,9㎡(1,315평)

임 대 료 : 별도협의(리모델링 비용지원)  
권장업종 : 병원/학원등  
장 점 : 도로접(2차선 양방향), 시내중앙, 일신방직 직영임대

**임대문의 | 062-510-5120**  
일신방직 관리팀

## 2018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 분	광주여자대학교(26기)	광주교육대학교(17기)
개강일시	· 화요일 오전반 : 2018. 3. 6.(화) 09:10 (총4주) · 토요일 오전반 : 2018. 3. 10.(토) 09:10 (총4주) · 토요일 오후반 : 2018. 3. 10.(토) 14:10 (총4주)	· 월요일 오전반 : 2018. 3. 5.(월) 09:10 (총4주) · 금요일 오전반 : 2018. 3. 9.(금) 09:10 (총4주) · 토요일 오후반 : 2018. 3. 10.(토) 14:10 (총4주)
모집기간	2018. 2. 1(목)~3. 10.(토)	2018. 2. 1(목)~3. 10.(토)
수업기간	2018. 3. 6.(화)~2018. 8. 18.(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8. 3. 5.(월)~2018. 8. 18.(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 국민은행: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 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정 명의로 수료증 수여</li> <li>·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li> <li>· 각급학교 (방과후 교육) 교사추천</li> <li>·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 취득기회부여</li> </ul>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 의: 062)950-3582~4 · 지도교수(선명공): 010-3614-4160 <b>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b> http://always.kwu.ac.kr	· 문 의: 062)520-4243 · 지도교수(선명공): 010-3614-4160 <b>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b> http://www.gnue.ac.kr/